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훈: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78호 현대불교  
2010년 4월 7일(음 2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 내 자부처가 더 가깝지 않나 데 부처가 더 가깝습니까?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이거예요. “참, 스님! 마음법을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제가 수십 번을 머리를 깎아서 신을 삼아 드린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신 주안한데 당신이 갚는 거니까,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잘 사는 게 바로 갚는 거야. 그 공부를 잘하고 잘 사는 게 갚는 거지, 나한테 뭘 갚다 주고 이래서 갚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자기 마음의 뜻을 알고 일체가 다 부처님의 그 가르치신 뜻을 알면, 당신의 뜻을 알면 다 알게 되어. 그게 갚는 거다.” 이랬습니다. 이 몸뚱이는 한 철 살다가 옷을 훨훨 벗어 버리고, 또 새 옷을 입고 싶으면 입고, 말고 싶으면 말고, 보살로서 중생들이 원하면 보이지 않게 다 구제하고 다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죠, 그것이.

우리가 어렵게 살다 보면요, 저 고기들 하나, 벌레 하나 사는 것을 봐도 참 애뜻해요. 우리가 살림살이와 똑같거든요. 모습은 사람 사는 거하고 달라도 사는 이치는 똑같아요. 내가 예전에 산길을 걸다가 봤는데, 개미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가고 째짢매고 있으니까 개미 세 마리가 달려들더니 그걸 끌고 갑니다. 개미도 그러는데, 사람으로서 그 도리를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또, 착을 두지 마라 하는 뜻에서 한마디 하겠는데, 이것도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어느 스님의 어머니가 장님인데, 아들이 입산을 하고나서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 아들 한번 보려고 길거리에서 물을 떠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고 있었거든요. 자기 아들 발에 상처가 있어서 만져 보면 아냐, 그랬는데 그 아들이 상처 안 난 발을 씻기게 하고는 또 다른 발 내놓으니까 그 씻은 발을 도로 내놔서 또 씻게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몰라봤거든요. 그러곤 아들이 저만치 가는데 동네 사람이 “아, 맥의 아들 만나서 발도 씻겨 주고 했구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만났.” 하니까 “아, 지금 저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아들을 쫓아가다가 개천에 빠져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발이 세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어머니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그 겹테기는 벗겨서 떠내려보내고 그 알맹이, 자기 어머니의 영혼만 건져서 자기한테 받들고선 갔답니다. 다 거기 놓아도 두드러지지 않으니깐. 영과 영이 한데 합쳐도 영이지 다른 거 없어요. 두드러질 일이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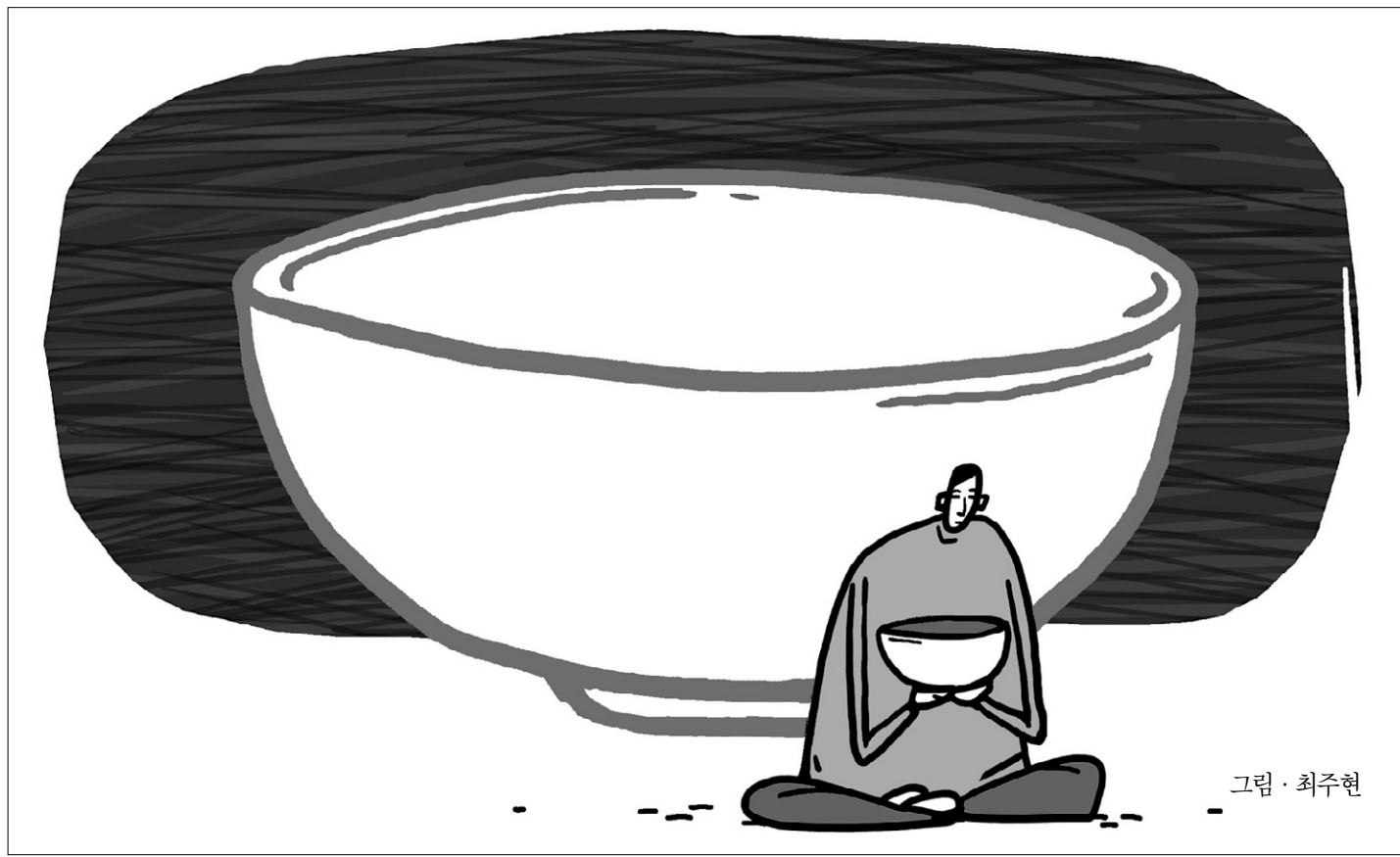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꺼내도 줄 일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계성이 들렸을 때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착을 두지 말고 영(靈) 그 자체, 그 마음만 여기다 넣고 그냥 관해 주고는 생각날 때마다 거기다 넣어 버리면 외려 그 영계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자꾸 마음으로 몸을 붙들고 날치니까 도저히 없어질 수가 없죠. ‘수만 개를 갖다 놓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수만 개를 꺼내도 줄 일 없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사는 데 다 있다는 얘기도. 그러니 ‘남을 구제를 해라.’ 이라는 것도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라 이런 뜻이예요. 내 자부처가 더 가깝지 않나 데 부처가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먹이려면 내 부처가 내 몸을 끌고 가서 먹여야죠. 가져오게 해서 먹이든지, 끌고 가서 먹이든지 먹일 거는 먹일 거예요. 아, 그래서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부처님이 대신 배고픈 걸 면하게 해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먹는 것

이고 또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도 주인공이 다 먹이게끔 하거든요. 자기 자부처가 스스로 형성 시켜서 이끌고 가는 자기 몸뚱이를 안 먹이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그것도 시험해 본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어디 살리나 죽이나 보자!’ 하고는 다 그냥 버리고, 남들은 산에 들어가면 미숫가루를 해 가지고 들어간다죠? 나는 다 내버리고 먹을 것도 없이 홀출단신, 이 뉘는 것도 버리고 머리 같은 것도 버리고, 예전 애깁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쥐고 들어갔어도 이만큼 길러지니까 그것을 동여매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배고프면 먹어 줘요. 하하하... 잘 때 없으면 자게 만들고요.

어느 때인가 한 번은 잘 데가 없어서요, 가을이어서 팔기도 열리고 갈대도 무성하고 이런데, 날씨는 쌀쌀하고 아주 추워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털떡 주저앉아서 그냥 있는데 ‘애, 저리로 가 보자.’ 이래요. 그래서 그리로 갔어요. 갔더니만 갈대 있죠? 갈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

니 이 아랫도리는 너털너털하고 그런데 갈대발을 지나가니까 상처가 나서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디 들어가 보자. 뭐 이까지 몸뚱이야 언제 가도 갈 거...’ 그러면서 들어갔더니만 그 안에 말입니다, 이만한 딸기들이 그냥 뽕같이 익어 있었어요. 그걸 따먹고 딱 따 먹다 보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갈대가 이렇게 촘촘히 있는데 그걸 높이라고 그래요. 내가 글공부 한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 걸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갈대를 이렇게 찢히니까 아, 그냥 스스로 방이 돼요. 그리고 스스로 둘러쳐졌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갈대를 이렇게 찢고 이렇게 찢었으니 거기 바닷도 뜨듯하고요. 또 갈대가 둘러싸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드러누워서도 따 먹고 앉아서도 따 먹고, 서서도 따 먹고 그냥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을 견디면서도 아주 웃으면서 참 즐겁게 살았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사람의 몸뚱이는 강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착을 두지 않아도 주인이 있다면, 자기 자부처가 있다면 다 살

릴 거예요. 자기 부처가 없어야 말이지, 모두 여러 분한테 다 있는데요. 특별히 부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예요.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예요. 뭐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질문자(남):**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스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지난날 불법제법회에서 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밥 한 숟가락을 남에게 배플면 두 숟가락 세 숟가락이 돌아오는 걸 아세요?” 하고 이렇게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셨는데 여기 있는 대중들 가운데서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그 대답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님께서는 물질 보시보다는 마음 보시가 중요하다고 법전에서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원에 나오기 전에는 남에게 뭘 배플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원에 나오고 스님하고 인연이 되면서부터, 제가 하는 일이 아주 위험한 일이나 스님의 법력에 좀 기대는 마음으로, 간혹 스님께 정성을 올린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의 심부름을 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따라 이상하게 좀 수일이 많았다.” 이렇게 얘길 하면 저희 어머니가 “아, 오늘 내가 선원에 다녀왔다.” 꼭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면 ‘뭘,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늘 그렇게 일치가 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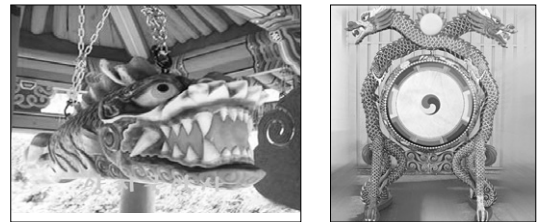
그때, 참 이게 틀림없고 묘한 도리구나 하는 걸 확신을 갖게 됐었는데 꼭 지나다 보니까, 제 주위 사람들에게 스님 법문 테이프나 책자를 한 권씩 아무 생각 없이 권하고 나면 꼭 그 과보가 정확히 돌아오는 걸 늘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법우님들하고 간혹 약주를 한 잔씩 해도 그게 틀림없이 돌아오는데, 제 일반 사회생활 하는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해 봐야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고 재미있는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물질로 하는 보시가 항상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형국이었던 때문에 그렇게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정 전날이었었는데, 그날 스님께 세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려고 삼막사쪽 도로변에 세워 놓은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

26면으로 계속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u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비교이** 數佛計 **종교법인으로 등록!**  
입종하시면 보호받습니다.  
우리종단은 문화와 예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입종비는 無!** **우리종단의 특징은!**  
승려사유재산보호  
대한민국불교미대전개최  
인시기특카드 입력  
제작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발급  
입금거래명세표  
자동법인입출금  
비품구매현황표  
일계표, 월계표  
분기별입출금분석표  
부서별지출금액관리표  
회비, 기부금거래명세서  
예산차이분석표  
프레젠테이션 작업  
포토샵작업  
신속 정확

**투명한 행정으로**

본종 소정의 양식 팩스나 E-메일 전화 등록으로도 가능함  
비구. 비구니. 법사. 선방, 포교원 운영자. 예술인. 등  
사원등록증. 임명장. 위촉장. 추대장. 추대장. 추천장. 도합장.  
수계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신도증. 자격증. 신분증

**대한불교우리조계종**  
총무원장 人化堂 知道 합장

###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 위빠사나 집중수행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숲속 향기와 목초 향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정	지도	인원	대상
2010년 4월 24일 - 4월 30일 [6박 7일]	우포도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향토방에 옥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작 날 - 4월 24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4월 30일 오전 12시
- 참가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비물 : 수행에 관한 북장, 세면도구, 방한소용, 필기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 dhamma53@hanmail.net